

## 《테러와 기독교의 신앙》

얼마전 리버사이드 발달장애인 재활센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14 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런 테러가 앞으로도 예측 할 수 없는 공공 장소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 할것으로 본다.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테러를 바라보는 눈은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는 좀 냉정하게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판적 태도가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이번처럼 미국내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기독교인들 보다도 이슬람교도들이 더 심각하게 이번 사건을 받아 들일 것으로 본다.

그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두려움과 더 심한 이슬람교도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릴 것이다. '내가 과연 이슬람 교도로 살아 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들은 소리없이 숨을 죽이고 사회의 따까운 눈초리를 받아가며 깊은 한숨과 더 나아가 이슬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테러 행위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절대 그런일은 없겠지만...) 우리 평범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문제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인가? 가 심각한 문제다.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극악한 살인 행위는 이슬람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인가? 물론 어떤 종교에서도 살인 행위는 용납  
되지 않는다.

나는 이슬람 옹호 주의자가 아니다. 파리가 아닌 내가 살고있는 가까운  
사회에서 발생한 테러이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마음으로 사건을 보려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이슬람에대한 비판적 견해를 버리려는 발버둥이다.

이런 테러가 발생 할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타시핀 말릭' 과 '사이드 파룩' 의 악한 행위는 꽤 씁쓸하고  
용서 받기 어렵다. 그 악한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떠는 평범한 이슬람인들을 품어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 줘야 할때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코란' 과 '모하메드' 의 가르침이 '성경' 과 '예수 그리스도'  
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인들이다.

이제 비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포용의 공간안으로 들어가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잔악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알라' 도 하나님이고, '야훼' 도 하나님일진데 어는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아픔에대한 기독교인의 행동에서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최사무엘목사 목회칼럼 12-7-2015》